



대흥란 / *Cymbidium macrorrhizum* Lindl.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|
| 속국명 | 보춘화속 |
| 과국명 | 난초과 |

| | |
|------|--|
| 과명 | Orchidaceae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난초과 부생식물로 우리나라의 강원도 삼척시, 충청남도 홍성군, 전라북도 부안군, 전라남도 여수시, 영광군, 경상남도 남해군, 제주도에서 자란다. 일본에서도 볼 수 있다.</p> <p>분포지역 : 일본 / 한국(강원도 삼척시; 충청남도 홍성군; 전라북도 부안군; 전라남도 여수시, 영광군; 경상남도 남해군; 제주도)</p> <p>형태 : 부생식물</p> <p>크기 : 높이 10~30cm이다.</p> <p>꽃색 : 백색, 자주색</p> <p>개화기 : 7월, 8월</p> <p>꽃은 7~8월에 홍자색이 섞인 하얀색으로 피고, 2~6개의 꽃이 드문드문 달린다. 꽃을 감싸는 작은 잎은 얇은 막처럼 되어 있으며 끝이 뾰족하다. 꽃받침조각은 거꿀달걀모양이며 끝이 뾰족하다. 꽃잎은 긴 타원 모양으로 꽃받침보다 짧다. 입술처럼 생긴 꽃잎 전체는 뺨기모양으로 가볍게 뒤로 젖혀진다. 가운데 밑부분이 약간 잘록하고 2개의 모가 진 선이 도드라지게 있으며 끝은 작은 물결모양이다. 수술과 암술이 합쳐진 꽃술대는 작은 돌기가 촘촘히 나 있다. 꽃대는 뿌리줄기 끝에서 나서 곧게 서며 약간의 털이 있다. 아랫부분에는 얇은 막처럼 되어 있는 비늘잎이 드문드문 있는데, 그 비늘잎의 밑부분은 짧은 잎집으로 되어 있다.</p> <p>하얀색의 두꺼운 뿌리줄기는 길게 뻗으며 가지가 갈라져 나오고 삼각형의 비늘 조각이 덮여 있다.</p> <p>상록광엽수의 숲 속에서 자란다.</p> |